

# 영어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코퍼스 기반 연구

박기성 · 전지현\*

(부산대학교)

**Park, Kiseong & Jeon, Jihyun. (2012). A corpus-based study on 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s and subject control constructions in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4), 177-19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rpus-based analysis of (i)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aising constructions and the corresponding non-raising constructions, and (ii) the semantic and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s and subject control constructions. The following findings are discussed. First, 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s are shown to be unmarked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non-raising constructions in terms of distributional frequency. Second, while subject-to-object raising constructions are used for the topicality of raised elements, the claim does not apply to the 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s. Third, the animacy of the subjects for control constructions was predominant, while that of raised subjects for 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s was not. Fourth, the control subjects are more definite than the raised ones, and the raised subjects of seem are more definite than those of (be) likely. Fifth, complement clauses in raising constructions are longer than those in the control constructions. Sixth, the complement verbs in the control constructions are more eventive than those in the raising constructions.

**주제어(Key Words):** 주어-주어 상승구문(subject-to-subject raising construction), 코퍼스(corpus), 주어통제구문(subject control construction), 유생성(animacy), 한정성(definiteness), 주제성(topicality)

---

\* 제1저자: 박기성, 교신저자: 전지현

##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 상승구문 특히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상응하는 비상승구문의 기능적 차별성과,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기능적 차별성을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Rosenbaum(1967)은 상승구문을 의미적으로 하위절에 속하는 주어가 상위절의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현상이라 정의했으며 크게 ‘주어-주어’ 상승과 ‘주어-목적어’ 상승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승구문 관련 연구는 ‘주어-목적어’ 상승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어-주어’ 상승구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가 다소 미흡한 ‘주어-주어’ 상승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통제구문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제구문은 주어통제구문과 목적어통제구문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외관상의 유사성을 갖는 주어통제구문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또는 실제 자료 분석을 제시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의 특징을 ‘주어-주어’ 상승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상응하는 비상승구문의 차이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논의를 통해 얻어진 분석 내용들은 COCA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될 것이다. 또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차이를 유생성과 한정성 그리고 보문절의 길이와 보문절 동사 유형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코퍼스 기반 방식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다원적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상승구문, 특히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그에 상응하는 비상승구문의 차이를 검토한 후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통제구문의 차이를 다원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1.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의 차이점

상승구문이란 용어는 Rosenbaum (1967)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의미적으로 하위절에 속하는 주어가 상위절의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1)</sup>

1) 하위절에서 상위절로의 이동을 Chomsky(1973)는 인정하지 않고, 소위 ‘상승된’ 요소는 하위 부정사절의 주어라고 주장한다. Chomsky(1973)가 제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승구문은 ‘주어-주어’ 상승과 ‘주어-목적어’ 상승이 대표적이다. 먼저 ‘주어-주어’ 상승의 예를 보자.

- (1) a. It seems that the revolt is spreadheaded by Bill.  
 b. The revolt seems to be spreadheaded by Bill.  
 c. It is certain that John wins.  
 d. John is certain to win.

(1a)와 (1c)에서는 ‘the revolt’와 ‘John’이 하위절의 주어로 기능하지만, (1b)와 (1d)에서는 상위절의 주어로 기능한다. 이러한 ‘주어-주어’ 상승 외에도 ‘주어-목적어’ 상승도 흔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2) a. John believes that Mary is honest.  
 b. John believes Mary to be honest.

(2a)에서는 ‘Mary’가 하위절의 주어로 기능하지만, (2b)에서는 상위절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msky(1973)의 견해를 채택하지 않고, 하위절의 주어가 상위절의 주어나 목적어로 이동하는 전형적 상승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한편 Frajzynger(1995)는 상승구문을 이른 중립적 용어로 주절부호화 구문(matrix-coding construction)이라 명칭하면서, ‘주어-주어’ 상승과 ‘주어-목적어’ 상승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 주장한다. 반면, Eckman(1977)<sup>2)</sup>은 상승과정에 대한 보편적 함축위계(implicational hierarchy)를 제시하면서 ‘주어-목적어’ 상승이 ‘주어-주어’ 상승 및 ‘목적어-주어(소위 tough-이동)’ 상승보다 일반적 유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Van Valin(2001)은 범어적으로 볼 때 ‘주어-목적어’ 상승보다는 ‘주어-주어’ 상승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상승동사의 상승구문 용법과 비상승구문 용법에 대한 사용빈도에 관한 조사 중의 하나는 Callies(2008)에 의해 이루어 졌다. Callies(2008)는 학습자 코퍼스 조사를 통해 ‘주어-목적어’ 상승구문과 그에 상응하는 비상승구문 간의 빈도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

[S Tyrone [VP believed [S Yolanda to have eaten his sandwich]]]

이 구조는 GB 이론에서도 계속 유지된 구조지만, LFG, RelG, GPSG 등의 이론에서는 주절로의 상승 구조를 옹호하였다

- 2) Eckman(1977)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이 세 가지 상승과정을 모두 갖지만, 현대 그리스어 헝가리어 등은 위계상의 위의 두 과정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히브리어나 터키어 등은 주어-목적어 상승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표 1. 학습자 코퍼스상의 빈도(Callies, 2008, p. 216)

Verb	That-clause(%)		SOR(%)		Passive/SSR(%)	
	LO	GI	LO	GI	LO	GI
believe	145 (94.2)	51 (86.4)	5 (3.2)	7 (11.9)	4 (2.6)	1 (1.7)
consider	4 (6.9)	1 (3.2)	14 (24.1)	21 (67.7)	40 (69.0)	9 (29.0)
expect	4 (17.4)	2 (9.5)	6 (26.1)	7 (33.3)	13 (56.5)	12 (57.1)
require	3 (17.6)	0 (0.0)	6 (35.3)	1 (50)	8 (47.1)	1 (50)

표 1에서 LO(LOCNESS)는 영어가 모국어인 대학생들의 글쓰기를 모은 학습자 코퍼스이고, GI(GICLE)는 독일어가 모국어인 대학생들의 영어글쓰기 학습자 코퍼스이다. 표 1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believe’ 동사의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들에 의해 비상승구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consider’ 동사나 ‘require’ 동사, 그리고 ‘expect’ 동사는 대부분 상승구문의 형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형태에 따라 상승구문의 사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목적어’ 상승과는 달리 ‘주어-주어’ 상승의 경우 비상승구문에 비해 상승구문이 사용 용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상승동사인 ‘seem, (be) likely, appear’의 사용용례(token)를 COCA 코퍼스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간의 사용빈도의 전체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COCA상의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

Verb	That-Clause(%)		SSR(%)	
	Spoken	academic (written)	Spoken	academic (written)
seem	11,865 (25.4)	8,682 (21.5)	32,172 (68.8)	28,285 (69.9)
likely	2,519 (24.1)	4,666 (14.2)	6,389 (61.0)	24,328 (74.2)
appear	3,033 (22.6)	5,830 (17.5)	7,113 (53.0)	18,007 (54.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seem’ 동사의 경우 상승구문 전체 사용 용례가 60,457이며, 비

상승구문 전체 사용 용례는 20,547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be) likely' 술어의 경우에도 상승구문 전체 사용 용례가 30,717이었고, 비상승구문 전체 사용 용례가 7,185으로 상당한 차이로 상승구문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은 'appear'의 경우에서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주어-목적어' 상승의 경우 술어의 종류에 따라 사용 빈도의 차이가 나지만, '주어-주어' 상승의 경우 술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승구문이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iber et al.(199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Biber et al.(1999)은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주어-목적어' 상승구문보다 빈번히 사용되며, 따라서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무표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주어-주어' 상승구문 전체 사용 용례를 장르에 따라 구분했을 경우, 'seem' 동사는 '(be) likely'와 'appear'과 달리 구어텍스트에서 더욱 많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상승구문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는 'seem'이 객관적 사실이나 인상에 바탕을 두고 기술하는 학술텍스트보다 감정이나 주관적 인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일상생활 담화에서 많이 관찰된다는 점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 2.2.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의 화용론적-인지언어학적 분석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무표적 경향을 갖는다는 점은 상승구문이 구조적 혹은 인지적 복잡성이 덜하다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며 훨씬 강한 구조적 인지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먼저 상승구문의 구조적 복잡성을 상승된 논항의 구조적 중의성(ambiguity) 혹은 모호성(vagueness)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자. 다음의 문장을 보자.

- (3) a. John believes that his teacher retires next year.  
b. John believes his teacher to retire next year.

(3a)에서 'his teacher'는 'retires'의 주어이며 that절은 'believes'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his teacher'는 'retires'의 주어로 한정되어 있으며 'believes'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는다. 반면 상승구문 (3b)에서 'his teacher'는 문법적으로는 'believe'의 목적어이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하위절의 주어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상승구문은 구조적으로 더욱 복잡하며, 따라서 구조적 복잡성을 갖는다.

한편 상승구문은 또한 인지적 복잡성도 지니는데, 이는 Langacker(1995)의 인지적 설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주어-주어' 상승의 예를 보자.

- (4) a. That Don will leave is likely.  
b. It is likely that Don will leave.  
c. Don is likely to leave. (Langacker, 1995, p 32)

(4)에서 (4a)와 (4b)는 비상승구문의 예이고, (4c)는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예이다. 이 구문에 대해 Langacker(1995, p. 33)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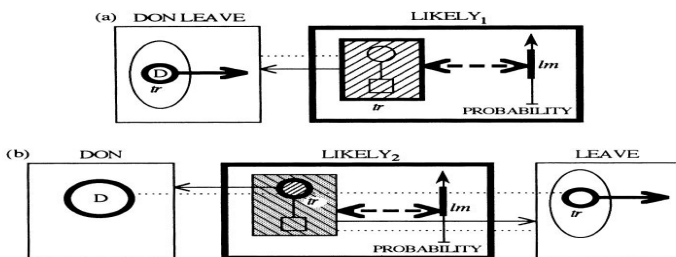


그림 1. 비상승구문 대 ‘주어-주어’ 상승구문 인지적 도식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Don’은 ‘be likely’와 ‘leave’ 두 술어의 탄도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그림 1(a)에서는 ‘Don’은 ‘leave’의 탄도체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5)의 문법성 차이가 설명된다.

- (5) a. Bill is certain to get the job, because he pursued it so aggressively.  
 b. ?That Bill will get the job is certain, because he pursued it so aggressively.  
 c. Bill is certain to get the job, because he’s the only applicant.  
 d. That Bill will get the job is certain, because he’s the only applicant.

(Langacker, 1995, p. 38)

먼저 (5a)와 (5b)를 비교해 보자. (5a)는 (5b)에 비해 ‘Bill’의 탄도체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건을 초래하는데 있어 자신의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에서는 상승구문이 적절하여 정문이 된다. 반면 (5b)는 주절에서 문장 주어가 사용되어도 (5a)와 같은 절간의 계속성이 여전히 허용된다. 그러나 ‘Bill’의 탄도체적 성격이 약화되어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다소간의 분리 상태로 인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못한다. 한편 (5c)와 (5d)는 각각 (5a)와 (5b)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5b)와 비교해 볼 때 (5d)는 문법적으로 용인 가능한데, (5d)의 종속절에는 ‘Bill’과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조되어 ‘Bill’의 탄도체적 성격의 중요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어-목적어’ 상승구문도 역시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6) a. I expect that Don will leave.

b. I expect Don to leave.

(Langacker, 1995, p. 34)

(6a)의 비상승구문과 (6b)의 상승구문의 차이를 인지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angacker, 1995,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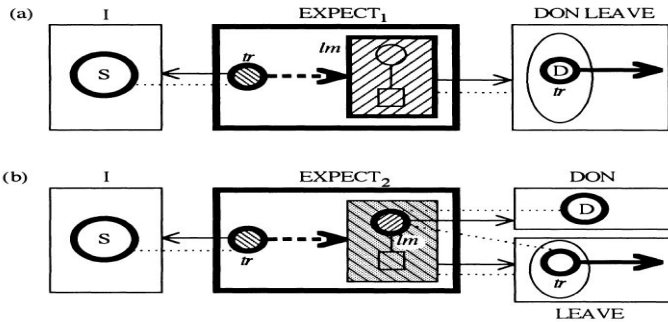


그림 2. 비상승구문 대 '주어-목적어' 상승구문 인지적 도식

그림 2(a)에서 'I'는 'expect'의 의식적 탄도체와 'Don leave'라는 과정적 지표 (landmark)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상승구문인 그림 2(b)에서 'I'는 'expect'의 주어의 의식적 탄도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Don'은 'expect'의 목적어이지만 'leave'의 탄도체 역할을 또한 수행한다. 여기에서 부정사 보여질인 'to leave'는 활성역(active zone)이 되며 그림 2(a)보다 복잡한 인지적 복잡성을 지니게 된다.

한편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은 주제성과 정보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 Noel(1997)은 '주어-목적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의 차이를 주제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상승구문의 상승요소 90%정도가 앞의 절이나 문장에서 이미 그 지시대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p. 277). (7)은 이것을 예시하고 있다.

(7) a. However, if much older women have children, she is less likely to be able to care for them when they are older. It would be unfair to have a child at say 60 knowing that you may be suffering from ill health in the near future and expect the child to support you. (LOCNESS)

b. "Crime does not pay". I have heard this statement a number of times throughout my life. I am at that stage in my life where I

believe it to be a question and not a statement. (LOCNESS)  
(Callies, 2008, p. 205-206)

(7a, b)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목적어’ 상승구문의 상승 요소는 모두 이전의 절이나 문장에서 사용된 지시물을 언급하고 있다.

‘주어-주어’ 상승의 경우 또한 ‘주어-목적어’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전 구문에서 이미 그 지시대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주어의 주제성은 비교적 낮다.

- (8) a. Washington continues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t, too seems to have little appetite left for engaging islamabad
- b. Ever since his father Louie was elected governor back in 1967, privilege and power seemed to be his birthright

(8a)의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경우 상승주어는 주제성을 유지하지만, (8b)의 상승주어는 주제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COCA 자료 중 상승동사 ‘seem’을 구어텍스트만으로, 그리고 상위출현문장 100개에 한정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COCA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상승 주어의 주제성 빈도 (seem 동사, 구어체)

	주제성	비주제성
발생 빈도수(%)	7(7%)	93(93%)

본 자료는 상승동사 ‘seem’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조사하였으며 구어텍스트에만 한정된 결과라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 경향은 추측해 볼 수 있다. Noel(1997)이 조사한 ‘주어-목적어’ 상승구문에서 약 90%가 주제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주어-주어’ 상승구문에서의 상승주어의 주제적 성격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제성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Grimm(2010)은 Nissim et al.(2004)의 정보구조를 이용하여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의 차이를 논의한다. Nissim et al.(2004)은 정보를 긍정보, 신정보, 매개(mediated)정보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매개정보란 대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도입되진 않았지만, 앞 대화로부터 추론가능하거나 청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를 이용하여 코퍼스 상의 사용빈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정보 위상 분포 (Grimm, 2010, p. 87)

	매개정보	신정보	구정보	허사	총계
비상승구문 (빈도수)	144	47	174	33	398
상승구문 (빈도수)	124	13	234	26	397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구문은 매개정보의 빈도는 비슷하지만, 신정보와 구정보의 분포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즉 두 구문 모두 그 주어가 신정보보다는 구정보를 나타내는 빈도가 훨씬 높지만, 상승구문의 경우 구정보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비상승구문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주제성이 구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Noel(1997)의 결과와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한국어 상승구문 코퍼스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데, Lee와 Chae(2008)는 한국어 ‘주어-목적어’ 상승구문에서 상승요소의 구정보 비율이 84.2%로 비상승구문의 주어요소의 구정보 비율 75.8%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고 주장하였다.

### 2.3.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 차이점

상승구문과 통제구문의 차이에 대한 많은 논의는 Chomsky의 GB이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GB이론에서 통제구문이 상승구문과 같이 통사적 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의미역기준(e-criterion)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동에 의한 설명이 부적절하고, 그 결과 통제구문을 위해 PRO라는 이론적 장치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John tried to escape’는 통제자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논항 명사와 하나의 비정형 종속 보문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통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9) [John<sub>i</sub> tried [PRO<sub>i</sub> to escape EMBEDDED] MATRIX]

(9)에서 ‘escape’ 동사의 암시적(covert) 논항 PRO는 ‘try’란 주절 동사의 명시적(overt) 논항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동지시(coreference)적 관계를 결속변항 ‘i’를 통해 표시한다. 이 PRO는 비지배되는 위치여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자신과 동지시되는 선행사를 가져야 하며, 여기서 ‘John’은 ‘try’의 주체가 된다.

통제 동사는 크게 ‘try’와 같은 ‘주어통제’ 동사와 ‘convince’와 같은 ‘목적어통제’ 동사로 나뉜다. 또한 ‘의무적(obligatory)’ 통제와 ‘임의적(arbitrary)’ 통제로 나뉘는데, 의무적 통제에서는 ‘try, promise, persuade’와 같은 동사의 보문 주어 속의 PRO는 상위문의 주

어나 목적어에 의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주어’ 상승 현상과 유사한 방식에 해당하는 주어통제 구문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 상승구문과 통제구문의 차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 두 구문의 차이는 먼저 관련되는 술어와 의미역의 수와 관계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0) a. Barnett seemed to understand the problem.

b. Barnett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

(Davies & Dubinsky, 2004, p. 3)

(10a)의 상승구문에서 주어 ‘Barnett’는 내포동사 ‘understand’에만 연결된다. 반면에 (10b)의 통제구문에서 주어 ‘Barnett’은 주절 동사 ‘try’와 내포동사 ‘understand’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어 ‘Barnett’은 의미역으로서 (10a)에서는 동사 ‘understand’의 경험자(experiencer) 역 하나만을 갖지만, (10b)에서는 ‘understand’의 경험자 역과 ‘try’의 행위자(agent) 역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술어와 의미역 수의 구분은 주절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에도 관찰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a. Barnett believed the doctor to have examined Tilman.

b. Barnett persuaded the doctor to examine Tilman.

(Davies & Dubinsky, 2004, p. 3)

(11) 역시 외관상으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11a)에서 ‘the doctor’는 의미적으로 하위절 동사와만 연결되지만, (11b)에서는 상위절 동사와 하위절 동사 모두에 적용되는 구문이다. 상승구문 (11a)에서는 ‘the doctor’가 하나의 의미역을 갖지만, 통제구문 (11b)에서는 ‘the doctor’가 두 개의 의미역과 관련되어 있다.

상승구문과 통제구문의 두 번째 차이는 관용어구(idiom chunk)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의 ‘the cat is out of the bag’이라는 표현에서 ‘the cat’은 글자 그대로 ‘고양이’일 수도 있고, ‘비밀이 누설되다’의 ‘비밀’이 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어느 구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관용적 의미 유지가 달라진다. 다음의 예를 보자 (Davies & Dubinsky, 2004, p. 8).

(12) a. The cat seemed to be out of the bag.

b. ?The cat tried to be out of the bag.

c. Tina believed the cat to be out of the bag by now.

d. ?Tina persuaded the cat to be out of the bag.

(12a)와 (12c)의 상승구문에서는 관용적 해석 ‘비밀이 누설되다’가 사용 가능하나, (12b)와 (12d)의 통제구문에서는 이러한 관용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승구문과 통제구문의 또 다른 차이는 분포적 차이와 관계되는데, 상승 동사는 허사 주어 ‘it’ 이나 ‘there’과 나타날 수 있지만, 통제 동사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Becker, 2005, p. 181).

- (13) a. It seems to be raining.
- b. \*It tried to be raining.
- c. There appears to be a problem.
- d. \*There decided to be a problem.

(13a)와 (13c)의 상승구문에서는 허사가 허용 가능하지만, (13b)와 (13d)의 통제구문은 허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코퍼스 분석

본 장에서는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그에 상응하는 비상승구문, 그리고 주어통제구문과의 차이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유생성과 한정성이라는 두 가지 인지 의미적 관점에서 ‘주어-주어’ 상승구문(및 비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보문절 길이와 보문절 동사유형의 차이를 논의할 것이다.

#### 3.1. 주어-주어 상승(및 비상승)구문 주어와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유생성

Croft(1990)의 세 가지 유생성 분류를 중심으로 ‘주어-주어’ 상승구문 내 주어의 유생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소절은 ‘주어-주어’ 상승 동사는 허사 주어 ‘it’ 이나 ‘there’과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주어통제 동사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위의 (13)의 예를 다시 보자.

- (14) a. It seems to be raining (for most of the morning).
- b. \*It tried to be raining (for most of the morning).
- c. There appears to be a problem.
- d. \*There decided to be a problem.

(14a)와 (14c)의 ‘주어-주어’ 상승구문에서는 허사가 허용 가능하지만, (14b)와 (14d)의 주어통제구문은 허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어통제구문의 유생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Croft(1990)가 제시하는 유생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15) Croft(1990)의 유생성 위계 (김은일 외, 2009, p. 25)

- a. 인칭위계: 1, 2인칭 > 3인칭
- b. 명사구유형위계: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진정한) 유생성위계: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물

이러한 Croft(1990)의 유생성 위계에 따른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사용 빈도를 COCA 자료 중 ‘seem’과 ‘(be) likely’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유생성 위계에 따른 주어-주어 상승구문 빈도

		인칭		명사구 유형		유생성	
seem to		1,2인칭	5	대명사	41	인간	54
		3인칭	95	고유명사	12	비인간 생물	0
spoken		-	-	보통명사	17	무생물	46
		1,2인칭	15	대명사	47	인간	66
likely to		3인칭	85	고유명사	6	비인간 생물	2
		-	-	보통명사	47	무생물	32
seem to		1,2인칭	1	대명사	19	인간	28
		3인칭	99	고유명사	5	비인간 생물	0
academic (written)		-	-	보통명사	76	무생물	72
		1,2인칭	2	대명사	13	인간	47
likely to		3인칭	98	고유명사	1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86	무생물	53

먼저 인칭위계의 관점에서 표 5를 살펴볼 때, 텍스트 유형과 무관하게 3인칭 주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인칭위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승 술어 ‘seem’과 ‘(be) likely’의 경우 의미 성격상 1인칭과 쉽게 부합하지 않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자신의 상태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자인 2인칭 명사구에 대해서도 ‘seem’과 ‘(be) likely’를 사용하여 상승구문을 사용할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동사의 의미상 압도적으로 3인칭 상승

요소가 많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명사구 유형 위계의 관점에서 표 5를 살펴보면, 인칭위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유형과 무관하게 고유명사의 비율이 가장 낮고 보통명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어,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명사구 유형 위계 역시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는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진정한)유생성 위계 또한 엄격하게 잘 지키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어텍스트의 경우 인간 상승 주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주어-주어' 상승구문이 비교적 유생성 위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학술텍스트에서는 유생성 위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어-주어' 상승구문은 유생성 위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어-주어' 상승구문은 분포 빈도의 관점에서 무표적 구문이기애, 유생성 제약과 같은 통사·의미적 제약이 잘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예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찰은 김은일(2000)의 주장과 같은 맥을 공유하고 있는데, 김은일(2000)은 한국어와는 달리 주어에 관한 영어 문법 현상 설명에서는 유생성 위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제약으로서 유생성 위계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유생성 위계 제약이 비상승구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Croft(1990)의 유생성 위계에 따른 비상승구문의 사용 빈도를 COCA 자료 중 'seem'과 '(be) likely'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비상승구문의 유생성위계 빈도

		인칭	명사구 유형	유생성			
seem that		1,2인칭	12	대명사	55	인간	46
		3인칭	88	고유명사	3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42	무생물	54
spoken		1,2인칭	19	대명사	59	인간	73
		3인칭	81	고유명사	4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37	무생물	27
likely that		1,2인칭	3	대명사	18	인간	37
		3인칭	97	고유명사	0	비인간 생물	3
		-	-	보통명사	82	무생물	60
seem that	academic	1,2인칭	2	대명사	15	인간	35
		3인칭	98	고유명사	0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85	무생물	65
likely that	(written)	1,2인칭	2	대명사	15	인간	35
		3인칭	98	고유명사	0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85	무생물	65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유사하게 비상승구문 역시 인칭위계, 명

사구 유형 위계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한)유생성 위계 또한 구어체 ‘(be) likely that’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유생성 위계 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어-주어’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술어는, 그것이 상승구문이든 아니든, 유생성 위계 제약과는 상관없이 사용되며, 유생성 위계와 오히려 반대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개연성과 외관상의 특성을 의미하는 ‘seem’과 ‘(be) likely’ 상승 술어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유생성에 대해 비교해 보자. Croft(1990)의 유생성 위계에 따른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사용 빈도를 COCA 자료 중 ‘try’와 ‘want’ 동사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주어통제구문의 유생성위계 빈도

		인칭		명사구 유형		유생성	
try to		1,2인칭	50	대명사	72	인간	92
		3인칭	50	고유명사	0	비인간 생물	0
spoken		-	-	보통명사	28	무생물	8
		1,2인칭	48	대명사	67	인간	95
want to		3인칭	52	고유명사	1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32	무생물	5
try to		1,2인칭	30	대명사	52	인간	82
		3인칭	70	고유명사	4	비인간 생물	0
academic (written)		-	-	보통명사	44	무생물	18
		1,2인칭	69	대명사	73	인간	99
want to		3인칭	31	고유명사	0	비인간 생물	0
		-	-	보통명사	27	무생물	1

먼저 인칭위계의 관점에서 표 7을 살펴볼 때, 주어통제구문은 인칭위계를 부분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텍스트의 경우, ‘want’는 인칭위계를 준수하고 있으나, ‘try’는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구어텍스트의 경우 두 동사 모두 인칭위계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명사구 유형 위계는 대명사가 보통명사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텍스트 종류에 상관없이 두 동사 모두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을 통해 관찰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진정한)유생성 위계가 주어통제구문에서 가장 명확히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어통제구문의 특성상 행위성과 유생성을 갖는 주어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간 주어가 거의 대부분 사용되며, 무생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무생물이 인간의 행위성을 의인화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합적으로 (진정한)유생성 위계는 상승구문에 비해 주어통제구문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erlmutter(197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어의 유생성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유생성 효과를 잘 나타내는 경우가 'begin' 동사와 같이 두 가지 구문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6) a. John began to write a paper.
- b. Water began to gush from the sewer.

(16a)의 통제주어는 유생주어로서 '시작자(beginner)'가 되는 반면 (16b)의 상승주어는 무생주어로서 '시작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변별적 요인으로 유생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주어-주어 상승(및 비상승) 주어와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한정성

주절 주어 위치는 전형적으로 '화제(theme)-평언(rheme)' 구조에서 화제를 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정적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승 대 비상승 구문에서의 주어의 한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승구문의 하위절 주어의 한정성과 상승구문의 상위절 주어의 한정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구문 주어는 비상승구문 주어에 비해 더욱 더 한정성을 잘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승구문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의 한정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텍스트별로 'seem'과 '(be) likely'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주어-주어 상승구문 및 비상승구문 한정성 빈도

	상승 주절 주어				비상승 종속절 주어			
	spoken		academic (written)		spoken		academic (written)	
	seem to	likely to	seem to	likely to	seem that	likely that	seem that	likely that
definite	80	69	62	34	85	81	55	59
indefinite	19	31	38	66	13	19	40	38
non-specific	1	0	0	0	3	0	5	3

위의 표 8은 '주어-주어' 상승구문 주어와 비상승구문 종속절 주어 사이의 한정성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주어-주어' 상승구문 주어의 경우 대부분 한정적 주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학술텍스트의 술어 '(be) likely'의 경우 비한정 주어가 훨씬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어-주어' 상승구문 주어는 비상승구문 주어에 비해 더욱 더 한정성을 잘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는다. 즉 한정성 측면에서 볼 때, 상승구문 주절 주어와 비상승구문 종속절 주어는 별 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구어텍스트와 학술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한정적 주어의 사용 빈도는 구어 텍스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구어텍스트에서 한정적 주어의 사용이 높은 이유는 대화의 연속성과 관련된다. 연속적인 대화 속에서는 새로운 개체보다는 이미 언급된 개체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정적 주어의 빈도수가 더 많아 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8에서 제시된 자료는 Serdobolskaya(2009)가 제시한 상승구문 한정성 위계와 잘 부합되지 않는다. Serdobolskaya의 한정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17) definite >> indefinite specific >> non-specific

(Serdobolskaya, 2009, p. 285)

Serdobolskaya(2009)의 위계에 의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 구문의 용인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인데, 위 표 8은 '주어-주어' 상승구문에서 한정적 주어의 사용이 비한정이나 비특정 주어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어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경우에는 상승구문의 한정성 위계가 잘 적용될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정성과 상승구문의 관계와 관련하여 비한정적 단수 총칭문과 상승구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자.

(18) a. A madrigal is polyphonic.

b. ?A madrigal seems to be polyphonic.

c. A pheasant lays speckled eggs.

d. ?A pheasant seems to lay speckled eggs.

(Grimm, 2010, p. 96)

위의 (1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8b)와 (18d)의 상승구문에서는 비한정 총칭문이 사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상승구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비상승구문에서는 비한정 총칭문이 사용가능하다.



- (19) a. It seems that a madrigal is polyphonic.
- b. It seems that a pheasant lays speckled eggs.

(Grimm, 2010, p. 96)

(19)의 예문들은 비상승구문에서는 비한정 총칭문이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한정성과의 비교를 위해 다음의 코퍼스 자료를 보자. COCA 자료 중 'try'와 'want' 동사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주어통제구문 주어의 한정성 빈도

	spoken		academic (written)	
	try to	want to	try to	want to
definite	84	69	74	79
indefinite	9	25	17	13
non-specific	7	6	9	8

위의 표 9는 주어통제구문에서 주어의 한정성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주어통제동사 'try'의 경우 한정 주어가 구어텍스트와 학술텍스트를 합한 평균 79%를 차지했으며, 'want'의 경우 평균 74%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는 표 8에 나타난 상승구문 주어의 한정성과 대조되는 것으로, 상승구문에서 'seem'의 경우 주어 한정성이 구어텍스트와 학술텍스트를 합한 평균 71%, '(be) likely'의 경우 평균 52%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어통제 구문의 주어 한정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승주어의 한정성이 '주어-주어'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어통제구문의 통제 주체인 주어는 한정성을 요구하는 분명한 경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3.3. 주어-주어 상승구문 보문절과 주어통제구문 보문절의 단어길이 상관성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 간의 관련성에서 외관상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보문절 단어의 길이(단어수)와 관련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비상승구문은 그 자체로 외치의 작용에 의해 길이가 긴 표현이 문장 뒤로 이동해 가는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비상승구문은 일반적으로 상승구문에 비해 보문절 길이가 길 것으로 예상된다. COCA 자료에 나타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 사이를 분석하였다. 각 텍스트별로 'seem'과 '(be) likely'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 보문절 단어 길이(단어수)

academic(written)				spoken			
seem to	likely to	seem that	likely that	seem to	likely to	seem that	likely that
24.32	27.64	30.27	29.55	20.21	22.21	26.94	24.1

위의 표 10에 의하면 학술텍스트나 구어텍스트 모두 상승 구문에서의 보문절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e) likely'에 비해 'seem' 동사의 경우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 간의 단어 길이의 차이가 보다 현저하였다. 'seem' 동사의 경우 상승구문은 보문절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사용된다는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be) likely' 술어의 경우 역시 상승구문은 보문절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사용되나, 상승구문과 비상승구문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 보문절의 길이 차이를 비교해 보자. COCA 자료 중 'try'와 'want' 동사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주어통제구문 보문절 단어 길이

academic(written)		spoken	
try to	want to	try to	want to
15.3	12.8	14	14.5

주어통제구문 보문절은 상승구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짧은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try'와 'want' 동사의 보문절은 텍스트 유형에 따른 보문절 단어 길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보문절 길이 차이는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생성 원리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주어-주어' 상승구문은 상응하는 비상승구문 자체가 문장의 길이로 인한 외치 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보문절 길이가 자연스럽게 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어통제구문의 주어는 외관상의 이동과 무관하게 기저 생성되며 보문절은 필요한 정보만을 전하는 기능을 갖는다.

### 3.4. 주어-주어 상승구문 보문절과 주어통제구문 보문절 동사 유형

Becker(2005, 2002)는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을 구분 짓는 또 다른 한 요인으로 보문절의 동사 유형과 관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Becker(2002)에 의하면 'begin'과 같이 두 가지 구문을 모두 허용하는 술어의 경우, 보문절 술어가 상태적(stative)이면 상승구문, 사건적(eventive)이면 주어통제구문을 유도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보문절 동사 유형은 제약이 덜 하지만, 주어통제구문의 경우 통제구문의 특성상 사건적 술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주어-주어’ 상승구문의 예를 보자. COCA 자료 중 ‘seem’과 ‘(be) likely’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주어-주어 상승구문 보문절 동사 유형 빈도

	보문절 동사 유형			
	academic(written)		spoken	
	seem to	likely to	seem to	likely to
eventive	21	37	15	44
stative	79	63	85	56

상승구문의 보문절 동사 유형은 상승 술어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성을 가진다. ‘seem’ 동사의 경우 학술텍스트와 구어텍스트를 합쳐 약 18%가 보문절의 사건적 술어와 공기하는 한편, ‘(be) likely’의 경우에는 약 40.5%가 사건적 술어와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be) likely’ 술어가 ‘seem’에 비해 보문절 동사의 역동성을 보다 요구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주어통제구문 보문절의 동사 유형을 살펴보자. COCA 자료 중 ‘try’와 ‘want’ 동사 출현 상위 100개 문장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주어통제구문 보문절 동사 유형 빈도

	보문절 동사 유형			
	academic(written)		spoken	
	try to	want to	try to	want to
eventive	89	71	83	72
stative	11	29	17	28

표 13은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달리, 주어통제구문의 경우 상태적 술어보다 사건적 술어가 텍스트의 종류와 상관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어통제구문의 경우에도 보다 행위성을 갖는 동사인 ‘try’의 경우에는 보문절에서 사건적 술어의 사용 빈도가 ‘want’ 동사의 경우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는 Becker(200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변별적 요인으로 보문절의 동사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영어 상승구문, 특히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상응하는 비상승구문 간의 구조 기능적 차이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COCA 자료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사용상의 차이점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주어' 상승구문은 사용 분포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 그에 상응하는 비상승구문에 비해 무표적 구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포적 빈도의 측면에서는 무표적이지만, 인지적 복잡성 등에 있어서는 그 반대적 경향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주어-목적어' 상승구문은 상승 요소의 주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주어-주어' 상승의 경우, 상승주어가 주제성을 갖는 비율이 낮아 두 상승구문이 주제성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유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상응하는 비상승구문은 유생성 위계의 준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정성 관점에서,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주어통제구문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술텍스트 상승구문의 경우 '(be) likely'의 비한정 주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보문절 길이의 관점에서 볼 때, '주어-주어' 상승구문과 상응하는 비상승구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비상승구문의 보문절이 약간 긴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주어-주어' 상승구문 보문절을 주어통제구문 보문절과 비교했을 때, 주어통제구문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로 상승구문 보문절 길이가 길었다. 셋째, '주어-주어' 상승구문은 보문절 내 상태 동사의 사용 비율이 높고, 주어통제구문은 사건 술어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상승구문의 경우 'seem'가 '(be) likely'보다 상태술어를 보문절에 더 많이 사용했으며, 주어통제구문의 경우 'try'가 'want' 보다 보문절의 술어가 사건 술어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구조 기능적 차이에 대한 코퍼스 기반적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보다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참고문헌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3.
- 김은일, 김명애,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한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23-40.
- Becker, M. (2002). *Verbs on the fringe: Raising verbs as lexical hazards* (IRCS tech. report #02-01). Philadelphia: Institute for Research on Cognitive Science.
- Becker, M. (2005). Learning verbs without arguments: The problem of raising

- verb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4(2), 173-199.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Longman.
- Callies, M. (2008). Easy to understand but difficult to use? Raising constructions and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advanced learner variety. In G. Gilquin, M. Diez-Bedmar, & S. Papp (Eds.), *Linking contrastive and learner corpus research* (pp. 201-226). Amsterdam: Rodopi.
- Chomsky, N.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S. Anderson, &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pp. 232-286).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es, W. & Dubinsky, S. (2004). *The grammar of raising and control: A course in syntactic argumenta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Eckman, F. (1977). On the explanation of some typological facts about raising. In F. Eckman (Ed.), *Current themes in linguistics* (pp. 195-214). New York: Halsted Press.
- Frajzynger, Z. (1995). *A functional theory of matrix coding*.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Functional Approaches to Grammar, Albuquerque, NM.
- Grimm, S. (2010). An empirical view on raising to subject. *ZAS Papers in Linguistics*, 52, 83-109.
- Langacker, R. (1995). Raising and transparency. *Language*, 71(1), 1-62.
- Lasnik, H., & Fiengo, R. (1974). Complement object deletion. *Linguistic Inquiry*, 5, 535-571.
- Lee, H., & Chae, G. (2008). To raise or not to raise: A corpus study of raising-to-object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4), 813-842.
- Nissim, M., Dingare, S., Carletta, J. & Steedman, M. (2004). An annotation scheme for information status in Dialogue. *Proceedings of the 4th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1-14.
- Noel, D. (1997). The choice between infinitives and *that*-clauses after believ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271-284.
- Perlmutter, D. (1970). The two verbs begin. In R. Jacobs &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pp. 107-119). Waltham, MA: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 Rosenbaum, P.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Serdobolskaya, N. (2009). Towards the typology of raising: A functional approach. In P. Epps, A. Arkhipov, & G. Corbett (Eds.), *New challenges in typology: Transcending the borders and refining the distinctions* (pp. 269-294). Berlin: Mouton de Gruyter.
- Van Valin, R. (2001). *An introduction to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박기성**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ksepark@pusan.ac.kr

전화번호: 051-510-2043

**전지현**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jhjeon@pusan.ac.kr

전화번호: 051-510-2034

Received on October 15,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13, 2012

Accepted on November 13, 2012